



불조심 강조의 달과 소방의 날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11월은 입동(7일)이 있고 늦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11월 9일은 제60주년 소방의 날이다.

이날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불조심 강조와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한다. 소방의 날 유래를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는 12월 1일을 방화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 기간이 정부에서 설정하여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 단위 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이라 하여 유공자 표창, 불조심 길거리 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1963년부터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가 거행되어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 일로 정했다. 소방의 날은 1963년 제1주년으로 환산하여 1991년 소방의 날을 제29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했다. 따라서 2022년 올해 11월 9일은 60주년 소방의 날 행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한 배경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입동 기간에 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고 불조심에 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가지 배경에서 국민들이 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 체험장 행사로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 종사자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의 소방 안전의식을 높이는 종합적 불조심 안전의 달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해마다 크고 작은 많은 화재와 산불 현장을 직간접으로 볼 때마다 불에 타서 흔적마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화재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마을 일이라 생각할 때, 불조심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조기인 겨울철에 소방시설이 없는 등산을 할 때는 각별한 불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불의 발견과 이용은 인류가 원시 동물 사회에서 인류 문명사회로 발전한 한 원동력이었으며 불은 물 공기와 더불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문명 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는 해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불이 났을 때마다 화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소방 안전시설 미비와 점검의 방심에서 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불조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 취지를 알고 화재 예방의 안전의식을 감지하고, 모든 방화시설을 점검 안전하게 보완하여 올해 겨울에는 화재 없는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는 화재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각 가정, 각 마을, 각 기관에서는 자율 소방대 활동은 계속 강화하고 소화훈련과 시설점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불을 잘 사용하는 문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화재 예방에 힘써 선진국 국민 의식을 높였으면 한다.

기고

상인들이 동참하는 화재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박상래 담양소방서장



'남아 그 시장을 가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 방송인 겸 사업가 백종원씨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바쁜 도시에서 떠나 여유롭고 정겨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주변 경관을 관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공교롭게도 우리 담양소방서 관내의 전통시장 두 곳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소개되어 기분 좋게 시청을 했다.

전통시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전국에는 1천개 넘는 시장이 있고 그곳에는 총 20만개에 육박하는 점포가 들어서있다. 장날이 되면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시장 구조가 좁고 밀집되어 있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차의 진입은 물론 사람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 들어 전통시장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져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건물이 노후화 되고 별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 또한 야기된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이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당부하고 계도하더라도 한계가 있기에 시장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기·가스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전기콘센트를 교체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화재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임으로 상인들 스스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시장 내에 설치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소방통로 상 진입방해요인을 없애야 한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주정차 또한 일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정다운 우리의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보이스피싱 수법, 알면 알수록 예방할 수 있다

박은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이(결제금액:730,000원) 정상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아닌 시 00-000-000로 문의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고객의 결제금액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출사기 발생 건수가 13,656건(2016년)에서 23,837건(2020년)으로 5년 사이에 74% 증가했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384건에서 7,844건으로 131%나 증가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종수법들이 등장하며 날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별로 유행하는 수법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비트코인, 주식의 급등 예정 종목을 공개한다며 채팅방에 초대 후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해 금전을 편취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료로 비트코인, 주식의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는 광고문자와 함께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URL이 온다면 100% 의심하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고전적 수법인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저금리 대출대출',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속임수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피하고 의심 해야하는 전화, 문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통장이 불법 거래에 사용이 되었으니 통장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이다.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 ▲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다. ▲ '엄마 나100인데~ 핸드폰이 고장 났어, 이 번호로 연락 줘'라며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으면 직접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전화로 사실확인을 해야한다.▲ 모르는 번호로 온 URL은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며 내 개인정보를 전부 빼내 갈 것이다.

이렇게 익숙한 수법을 보며 사람들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이런 걸 누가 당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대다수 사람은 "뒤에 훔친 듯이 당했어요. 저는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라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방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 홍보물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수법을 알리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시티즌 코난' 앱은 악성 앱을 탐지, 차단할 수 있으니 모두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알면 알수록,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범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층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